<사라진 거미> 프로덕션 일지

프레임/쇼트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

영화연출전공 서 종 현
지도교수 윤 용 아

2024 . 12 . 18.

목 차

1. 시나리오 개발 일지

1) 로그라인

2) 시놉시스

3) 기획의도

2. 프로덕션 일지

1) 촬영 및 조명 컨셉

2) 화면비와 촬영 장비

3) 미술 (의상 및 소품)

4) 로케이션 헌팅

5) 편집

6) 색보정

3. 결론

1) 총평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시나리오 개발 일지

1) 로그라인

부모를 교통사고로 죽게 만들기 위해 남자를 이용한 여자는,
남자의 고백을 듣고 사고 현장을 다시 찾는다.
여자는 손전등 하나만 들고 어둠 속을 걸으며 자신의 선택을 직면하고,
남자는 자신에게 다가온 재앙을 받아들인다.

2) 시놉시스

한적한 밤 젊은 여자는 고급 아파트로 귀가한다, .
집에 오자마자 차를 내리는 익숙한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밝혀진 거실 불빛 아래 낯선 남자가 의자에 앉아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 .
남자는 교통사고로 그녀의 부모를 죽였다고 고백하며 여자에게 사과한다.
이에 여자는 담담히 그날 밤의 진실을 말한다.
부모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그녀가 철저히 설계한 함정이었다.
교통사고를 유도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 속에 남자는 비극의 도구에 불과했다.
여자는 보험금을 넘기며 남자에게 진심어린 사죄를 구한다.
돈을 챙긴 남자는 차에 여자를 태우고 사고현장에 도착한다.
남자는 여자에게 손전등 하나를 쥐어주고,
이곳에서 벌어진 일들을 생생히 느끼고 똑바로 직시하라고 한다.
남자는 부모를 죽인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묻고,
여자는 부모가 년간 매일 밤마다 사랑을 나누는 소리를 듣게 했다고 20 ,
자신이 왜 태어났는지 묻게 되는 괴로움이 살해 이유라고 말한다.
남자는 이곳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불 켜진 곳에 있겠다고 말하고 떠나버린다.
여자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한참동안 어두운 길을 걷는다.
허름한 모텔 앞에서 남자는 담배를 피며 여자를 기다린다.
남자는 마침내 도착한 여자에게 앞으로 평생 손전등 하나를 들고
어두운 길을 걷기를 선택한 것이라 말하며 돈이 든 가방을 돌려준다.
남자가 떠나려 하자 여자는 남자의 손목을 잡아챈다.

남자는 여자를 잠깐 바라보다 떠나고,
여자는 차가 지나간 길이 어두워질 때까지 바라본다.
남자의 차가 멈춰 선다.

3) 기획의도

〈사라진 거미〉는 인간 존재의 본질과 인간 관계의 소유불가성, 그리고 그로부터 불거지는 한계에 대한 겸허한 탐구를 중심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삶과 죽음, 선택과 책임이라는 주제를 통해 인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성장하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의하는지를 차분히 고민합니다. 영화는 관객에게 인간의 조건에 대한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의 삶을 반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자가 부모의 죽음을 설계하며 추구한 해방감은 단순히 자유를 얻기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녀가 억압적인 관계를 극복하고 자신을 인간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치열한 자기 탐구의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과정에서 인간 관계의 소유불가성과 그로부터 비롯된 모순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모순은 그녀를 깊은 내적 갈등으로 이끌며, 단순히 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론적 고민을 드러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교통사고 가해자인 남자가 계획범죄의 피해자로 전환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서사의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요소를 넘어, 인간 관계와 도덕적 책임의 본질을 깊이 성찰하게 합니다. 남자는 사고로 인해 단순한 가해자의 역할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우발적으로 여자의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복수 계획에 말려들어 새로운 관계의 피해자가 됩니다. 이로써 남자는 자신이 빚은 비극과 맞닥뜨리고, 이를 통해 자신의 책임을 숙고하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이 영화에서 단순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관계의 뒤엉킴과 인간 의지의 한계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사고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며, 이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각과 관계의 의미를 바꾸는 계기가 됩니다. 남자는 자신이 여자의 삶에 끼친 영향을 깨닫고, 그녀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려는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책임감은 단순히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관계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내적 갈등과 인간적 욕망을 동시에 반영합니다. 그는 자신의 훈계를 통해 여자가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의 훈계는 강요가 아닌, 인간 관계에서 흔히 경험하는 상처와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남자의 책임감은 영화의 서사적 전개뿐만 아니라 철학적 심층성을 더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초래한 비극을 단순히 회피하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재정의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자는 여자의 부모를 죽음에 이르게 한 자신의 과오를 부정하지 않으며, 그로 인해 그녀의 삶에 끼친 영향을 직면합니다. 그의 훈계는 단순히 그녀에게 교훈을 전달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여자가 자신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상호 작용하며, 고통과 치유를 함께 경험하는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이분법적 구조를 넘어, 인간 관계 속에서 역할이 어떻게 뒤바뀔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끊임없이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여자의 복수 계획 속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관계의 복잡성을 한층 더 부각시킵니다. 이는 인간이 관계 속에서 어떤 위치에 놓이든 자신의 선택과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암시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부모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했지만, 남자와의 새로운 관계는 그녀로 하여금 자유란 단순히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이 아니라, 상처를 받아들이고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정의하는 과정임을 깨닫게 합니다.

남자는 여자의 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는 단순히 구원자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는 여자의 부모를 직접적으로 죽게 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일말의 책임감을 느끼며, 이러한 죄책감 속에서 그녀에게 훈계와 함께 깨달음의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노력합니다. 그의 훈계는 단순한 강요가 아니라, 여자가 자신의 상처를 직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진심 어린 충고입니다. 그는 여자가 자신과 부모와의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도록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그녀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내적 구원과 자기 성찰의 길을 걷도록 돕는 진정성 어린 시도입니다. 그의 대화와 행동은 인간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고, 상처 속에서도 관계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과정을 탐구합니다.

부모라는 존재는 이 영화에서 단순히 생명을 부여하는 역할을 넘어, 자녀의 자유와 성장에 억압적 요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와의 관계는 억압으로 끝나지 않고, 인간 관계의 소유불가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이는 여자가 자신의 존재를 새롭게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합니다. 부모의 죽음은 그녀에게 물리적 자유를 제공했지만, 그 과정에서 남자와의 복잡한 관계는 그녀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란 관계의 소유가 아니라 관계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자가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걸어가는 장면은 이 영화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그

것은 인간이 타인에 의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과를 감당하는 주체임을 상징합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라 내적 구원과 자기 성찰을 향한 탐구이며, 관객에게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손전등의 빛은 그녀가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의 은유적 표현이며, 빛과 어둠의 대비는 인간의 고통과 희망이 공존함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인간이 자신의 선택 속에서 빚어진 관계의 상처를 직면하며, 동시에 그 관계의 본질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사라진 거미〉는 삶과 죽음, 선택과 관계라는 보편적 주제를 다루면서도 연출진과 관객이 함께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를 이해하고, 관계와 선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2. 프로덕션 일지

1) 촬영 및 조명 컨셉

영화의 촬영과 조명은 최대한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인위적인 촬영 장비를 배제하고, 영화의 사건과 공간에 이미 존재하는 빛만을 활용함으로써 현실감과 내적 긴장감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조명은 차량 헤드라이트, 가로등, 달빛, 그리고 실내의 갓등과 같은 자연적이거나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광원만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인물들이 처한 상황의 고립감과 날것 그대로의 비극성을 더욱 강조합니다.

- 교통사고 장면: 차량 헤드라이트가 주광원으로 사용되어 강렬한 대비와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헤드라이트의 직선적 빛은 인물의 운명적 충돌과 그로부터 도망치려는 남자의 심리를 시각화하며, 빛이 비추지 않는 어둠은 비극의 여운을 남깁니다. 이 장면은 극적인 감정선을 시각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크레인차를 활용한 극부감 숏으로 촬영되었습니다. 극부감은 캐릭터들이 마주한 운명과 비극을 초연하게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을 제공하며, 인간 존재의 무력함과 그들이 맞서야 하는 현실의 거대함을 상징적으로 전달합니다.

- 여자의 집: 실내의 갓등과 클래식한 전등의 은은한 빛이 사용되었으며, 일부 장면에서는 빛이 미치지 않는 공간을 남겨 두어 여자의 불안과

고립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녀의 일상적 삶과 내면의 공허함 사이의 간극을 시각화하는 장치로 기능합니다.

- 손전등 장면: 여자가 손전등을 들고 어둠 속을 걷는 장면은 영화의 철학적 핵심을 상징합니다. 손전등의 빛은 그녀가 직면해야 할 진실과 탐구의 여정을 상징하며, 빛이 비추는 부분과 남겨진 어둠 사이의 경계는 인간 존재의 모순과 진실의 한계를 암시합니다.

영화의 조명 컨셉은 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서사적 긴장감을 표현하면서도, 인위적인 기교를 최소화하여 관객이 극의 사실성과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2) 화면비와 촬영장비

화면비는 1.85:1 을 사용하여 공간과 인물의 관계를 균형 있게 표현했습니다. 현실적인 화면비를 통해 캐릭터의 일상과 서사의 비극성을 동시에 포착하며, 밀도 있는 장면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촬영 장비로는 Sony FX9 를 사용하여 디지털의 세밀함을 강조하면서도 부드러운 질감을 유지했습니다. 렌즈는 Xeen CF 렌즈를 활용하여 깊이감 있는 화면과 자연스러운 심도를 구현했으며, Hollywood Blackmagic 필터를 통해 빛의 확산과 부드러운 톤을 만들어냈습니다. 카메라 움직임에는 MovMax 슬라이더로 주요 씬에 차분한 역동성을 더했습니다. 특히 극부감이 요구되는 주요 장면에서는 크레인차를 동원하여, 공간의 압도적 스케일과 인물의 고립감을 동시에 시각화했습니다.

3) 미술(의상 및 소품)

미술적 접근은 캐릭터의 내면과 영화의 주제 의식을 시각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의상: 여자의 의상은 깔끔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무채색과 차가운 톤을 활용해 그녀의 외형적 완벽함과 내면의 불안정함을 동시에 표현했습니다. 반면, 남자의 의상은 시간의 흐름과 죄책감을 상징하듯 어둡고 낡은 질감이 강조되었습니다.

- 소품: 영화의 상징적 소품들은 서사의 철학적 의미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손전등은 진실을 탐구하려는 여정과 인간 내면의 어둠을 직시하려는 시도를 상징하며, 돈가방은 죄책감과 관계의 대가를 은유합니다. 실내 주전자가 내는 소리는 긴장감을 부각하면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비일상적인 사건이 어떻게 끼어드는지를 암시합니다.

4) 로케이션

로케이션은 영화의 리얼리즘과 서사적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 신중하게 선택되었습니다. 각 공간은 인물의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면서도 영화의 철학적 주제를 시각화합니다.

- 여자의 집: 고급 아파트는 외형적으로 완벽해 보이지만, 내부의 정돈된 공간과 차가운 색감은 그녀의 내면적 공허함과 고립을 상징합니다.
- 교통사고 현장: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가로등만 비출 뿐 텅 빈 공간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불안하게 빛나는 헤드라이트와 어둠 속에 멈춘 차는 인물의 절망과 죄책감을 상징적으로 전달합니다. 크레인차를 활용해 극부감으로 촬영된 이 장면은 사건의 전모를 객관화하며, 비극적 순간이 남긴 고요하고 냉혹한 여운을 강조합니다.

- 어둠 속 길: 여자가 홀로 걷는 장면에서 선택된 자연스러운 어두운 길은 영화의 철학적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공간입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가 그녀의 고독과 자기 성찰의 여정을 표현하며, 존재의 불확실성과 진실에 대한 탐구를 은유적으로 드러냅니다.

- 촬영지: 주요 촬영지는 고양시의 한적한 교외 로케이션과 인천 검단신도시의 고급스러운 아파트입니다. 현실적이면서도 또 비일상, 비도시적인 느낌을 동시에 구현하는 공간을 찾아, 인물의 감정선과 서사의 깊이를 강화했습니다.

5) 편집

편집은 인물의 내적 여정과 긴장감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느린 페이스와 정적 구도: 장면 간의 빠른 전환보다는 느린 페이스를 유지하여 관객이 인물의 감정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특정 컷은 인물의 심리적 여운을 전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길게 유지합니다.
감정선 중심의 흐름: 이야기의 전개보다는 인물의 내면적 변화와 관계의 미세한 균열을 부각합니다. 예를 들어, 남자와 여자의 첫 대면 장면은 긴장감의 상승과 감정적 충돌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도록 세밀하게 편집됩니다.
대조적인 컷 구성: 손전등 장면과 교통사고 장면처럼 빛과 어둠, 움직임과 정적을 대조적으로 배치하여 영화의 철학적 주제를 시각적으로 상징화합니다.

6) 색보정

ㅇ Kodak Vision3 SOD 기반의 필름룩: 디지털 촬영본에 필름 특유의 질감을 부여하여 현실과 비현실 사이의 미묘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ㅇ 차가운 톤 유지: 영화 전반에서 차가운 톤을 적용하여 인물의 고립감과 서사의 비극성을 강조합니다. 교통사고 장면에서는 블루-그레이 톤으로 도로의 황량함을, 여자의 집에서는 은은한 톤으로 내면의 불안을 드러냅니다.
ㅇ 빛과 어둠의 대비 강화: 손전등 장면처럼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장면에서는 대비를 극대화하여 인물이 직면한 선택과 진실을 시각적으로 표현합니다.

3. 결론

1) 총평

〈사라진 거미〉를 완성하며, 이 영화는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인간의 내면과 관계의 본질에 대해 깊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일부분 성공했다고 느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인물의 감정을 대화 위주로 풀어내며, 관객이 그 감정을 생생히 체감할 수 있도록 시각적, 청각적으로 조율한 순간들이었습니다. 특히, 손전등 장면에서 어둠 속에서 빛이 스며드는 연출은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불확실성과 진실에 대한 탐구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가장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사고 장면은 개인적으로 강렬한 도전이자 배움의 순간이었습니다. 크레인차를 활용해 극부감으로 촬영하며 비극적 순간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은 관객에게 사건의 본질을 강렬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진 조명 연출과 카메라 움직임은 그녀의 내면 세계를 담아내기 위해 조화롭게 설계된 결과물이었고, 이는 캐릭터의 깊이를 전달하는 데 성공적이었다고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이 영화를 만들며 스스로와 우저희 팀이 이야기하려는 주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인간 관계의 소유불가성과 그 한계, 선택의 무게, 그리고 내면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기보다는, 관객들에게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만의 답을 찾는 여정을 선사할 수 있었다면, 이 영화는 본래의 의도를 달성한 것이라 느낍니다.

2)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로케이션 활용의 한계

일부 장면에서 로케이션이 서사와 시각적 표현력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현장과 어둠 속 길 장면에서 배경의 디테일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은 향후 작품에서 로케이션 헌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ㅇ 감정선의 전달 부족

특정 장면에서 배우의 감정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던 부분은 연출자로서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배우들의 표현과 장면의 긴장감을 더 강화하기 위한 리허설 및 추가적인 연출 고민이 필요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의 내적 갈등을 표현하는 장면에서 더 긴 호흡과 음악적 요소의 활용이 있었다면 더 깊이 있는 감정 전달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ㅇ 촬영 일정의 제약

타이트한 스케줄로 인해 장면마다 충분히 디테일한 연출을 구현하지 못했던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여유 있는 일정을 계획하고, 리허설 시간을 더 확보했다면 장면의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ㅇ 후반 작업 리소스 부족

컬러 그레이딩과 사운드 믹싱에서 세밀한 작업이 더 이루어졌다면 영화의 분위기와 정서가 더욱 풍부해질 수 있었습니다. 후반 작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느꼈고, 향후 프로젝트에서는 리소스와 시간을 보다 충분히 배분할 계획입니다.

마치며…

〈사라진 거미〉는 여러가지 아쉬움 속에서도, 팀원들과의 협력과 치열한 고민을 통해 의미 있는 결과물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 제작 과정에서 얻은 깨달음과 경험은 앞으로 더 나은 작품을 만드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후반작업을 빠르게 마무리 해 세상에 공개를 꼭 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